



## 안정복 安鼎福의 「천학문답 天學問答」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 反西學的 인식의 확산

— 손재 損齋 남한조 南漢朝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 安順菴天學或問辨疑」

조지형\*

1. 서론
2. 남한조 南漢朝의 학문적 계보와 서학 西學 인식
3. 「안순암천학혹문변의 安順菴天學或問辨疑」의  
「천학문답 天學問答」 비평 교정 양상
4. 18세기 반서학적 反西學的 흐름의 확산과  
남한조 南漢朝의 위상
5. 결론

### 요약

본고는 영남 출신 남인 학자 남한조 南漢朝의 학문적 계보와 생애사를 검토하여 그가 지녔던 반서학적 인식의 형성 과정과 실질을 살피고, 그를 통해 영남 지역으로 서학 비판의 흐름이 확산되어 가는 국면을 탐색하였다.

남한조는 경상도 상주 尙州 출신으로서 본래 이상정 李象靖 문하에서 수학한 영남 이학파 理學派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승 사후에 다시 안정복 安鼎福에게 나아가 수학하면서 당시 근기 남인 사이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던 서학 西學의

\* 趙志衡, 인천가톨릭대학교

실체를 인지하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스승의 권유로 『천학문답天學問答』에 대한 교정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개진한 『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라는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조선에 서학이 치성하게 된 원인을 탐색하다가 『이성호천주실의발변의李星湖天主實義發辨疑』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두 저술은 남한조가 지녔던 반서학적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18세기 후반 근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서학 비판의 흐름은 남한조를 매개로 하여 이상정 문하의 영남 이학파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남한조와 교류하던 영남 지역의 여러 문인들, 예컨대 정종로鄭宗魯·조술도趙述道·황용한黃龍漢·신체인申體仁·이동급李東及은 각각 반서학적 인식을 담은 저술들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남한조의 제자였던 류건휴柳健休는 『이학집변異學集辨』을 찬술하였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반서학적 인식과 흐름이 근기 지역에서 영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영남 지역 안에서 반서학 정서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남한조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 남한조南漢朝, 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 서학西學, 안정복安鼎福, 천학문답天學問答, 성호우파星湖右派

## 1. 서론

본고는 18세기 후반 영남 지역 출신 남인 계열 학자였던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1744~1809)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의 대표적인 반서학 저술 『천학문답天學問答』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가한 『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남한조가 지녔던 서학 인식의 양상과 실질을 탐색하고 그를 통해 영남 지역으로 반서학적 인식이 확산되어 가는 국면을 탐색하여 18세기 사상사 속에서

그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18세기 서학의 수용과 비판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이다. 이익은 조선 최초로 서학서들에 대한 전면적 독서를 통해 서교와 서학서에 대한 자신의 이해 관점을 드러내었다.<sup>1</sup> 이 과정에서 그가 남긴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칠극변(七克辨)」·「발천주실의(跋天主實義)」이다.<sup>2</sup> 이후 조선의 재야 학계에서는 이익을 기점으로 서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철학적 사유의 새로운 지평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성호 이익의 학문적 성향에 의해, 성호 문하의 학자들은 서학과 서교를 두고 이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성호우파 계열과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성호좌파 계열로 분화되기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18세기 서학 비판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안정복은 이른바 성호우파 계열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학과 서교에 대한 대응을 지식론적 논의 수준으로부터 유교 질서의 수호를 위한 ‘벽이단(闢異端)’의 차원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진행되는 서학과 서교에 대한 대응을 주목하면서, 그 위기가 서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에게 닥칠 것을 우려하여 「천학설문(天學設問)」·「천학고(天學考)」·「천학문답(天學問答)」 등의 저술을 지어 서학과 서교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가하였다.

한편 안정복 이외에도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sup>3</sup>, 간옹(艮翁) 이헌경(李獻慶), 무명

1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실학 — 반계와 성호의 경우」, 『철학사상』 12(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1), 5~29쪽.

2 성호 이익의 서학서에 대한 저술은 이것 이외에도 「跋職方外紀」·「跋天間略」·「題星土坵開圖」 등이 있다.

3 신후담의 반서학적 인식에 대해서는 김선희, 『하빈 신후담의 돈와서학변』(사람의무늬,

자無名子 윤기尹楮, 공백당拱白堂 황덕일黃德壹 등에 의해 여러 서학 비판 저술이 등장하였지만,<sup>4</sup> 18세기 서학 비판 논의의 중심축에는 이른바 ‘근기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18세기 서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 성호 이익을 기점으로 하여 그 문하 혹은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한양 및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손재 남한조는 이러한 경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경상도 상주尙州 출신으로서 대산山 이상정李象靖(1711~1781) 문하에서 수학한 영남 지역 남인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스승 사후에 다시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였던 안정복에게 나아가 수학을 이어갔다. 수학 과정에서 남한조는 근기 남인 사이에서 당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던 서학의 실체를 인지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남한조는 근기 남인 출신이 아니라 영남 남인으로서 안정복과의 사승관계를 통해 반서학적 입장을 지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도 본론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남한조는 안정복이 저술한 『천학문답』의 초고본을 읽고 비평·교정함으로써, 안정복의 『천학문답』이 수정되고 완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그는 본래 영남 남인 출신이었던 만큼 그와 긴밀하게 교류하던 영남 지역의 인사들에게 반서학적 입장을 전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18세기 반서학적 인식의

2014) 참조.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조지형,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교회사연구』 50(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7~44쪽; 조지형, 『無名子 尹楮의 서학 비판 저술과 천주교 인식』, 『누리와말씀』 41(인천가톨릭대학교, 2017), 119~150쪽; 조지형, 『順菴 西學認識의 계승과 확장, 黃德壹의 『三家略』』, 『누리와말씀』 36(인천가톨릭대학교, 2014), 351~392쪽 참조.

확산 국면에서 남한조의 저술과 활동은 중요한 의의가 있기에 탐색의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간 남한조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한조의 출생과 수학 과정 등 생애 주요 국면을 살펴 그가 서학을 접하고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조가 안정복의 저술 「천학문답」에 대해 비평 교정한 「안순암천학 흑문변의」를 분석하여 그의 비판의 요지를 살피고 반서학적 입장을 추적하는 한편, 나아가 그의 서학적 인식이 영남 지역 남인 학자들에게 끼친 영향 관계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남한조南漢朝의 학문적 계보와 서학西學 인식

남한조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종백宗伯, 호는 손재損齋이다. 그는 조선 개국공신 남은南問의 후손으로 그의 6대조인 남영南嶸(1548~1616) 이후 대대로 경상도 상주 일대에 세거한 영남 지역의 명문 사족이었다.<sup>5</sup> 그의 증조부 남도익南道翼까지는 대대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지역의 사족으로 명망이 높았지만, 조부 남정삼南鼎三-부친 남필용南必容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와 인연을 맺지 못하여 가세가 점차 기울었지만 유자儒者로서의 명맥은 줄곧 잘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린 시절 박복한 세월을 보냈다. 집안 형편도 그다지 좋지 못하였는

5 鄭宗魯, 「損齋南公行狀」, 『立齋集』卷45(한국문집총간 254), 283~284쪽. “其後又有閭, 佐我太祖策開國勳諡剛武. 六世至郡守嶸, 以孝聞, 贈左參贊享俎豆, 實始居咸寧.”

데, 9살에 부친상을 당하고는 일찍부터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며 가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상을 마치고 그는 모친의 권유로 봉화에 거주하고 있던 외삼촌 소암素庵 김진동金鎭東(1727~1800)에게 나아가 9년간 수학을 하였다. 하지만 17살 때 모친상까지 당하면서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전적으로 학문에만 매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이 때문에 그는 30살을 훌쩍 넘어선 늦은 나이로 안동에 은거하던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에게 나아가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 두루 알려져 있는바, 이상정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이후 기호학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영남학파에서 이황의 계승을 주장하고 일어난 이현일李玄逸-이재李裁로 이어진 영남 이학파의 증추적 인물이었다. 남한조는 이상정에게 나아가 사서四書·주역周易·주서朱書·퇴도서退陶書 등을 공부하였다.<sup>6</sup> 아울러 이상정 문하에 있던 선배 문인 후산后山 이종수李宗洙, 천사川沙 김종덕金宗德, 동암東巖 류장원柳長源 등에게도 질의를 하며 학문을 공고하게 다져나갔다.

그러나 남한조의 나이 38살 때인 1781년 이상정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과거시험 응시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듬해인 1782년에 다시 경기도 광주廣州에 거주하던 안정복安鼎福에게 나아가 수학을 이어갔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에는 권철신權哲身·이기양李基讓·이벽李磻 등 성호 문하의 소장 학자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서학서를 공부하며 조선천주교회의 기초를 닦고 있었다. 이에 안정복은 권철신에게 편지를 보내 서학을 끊을 것을 권고하고 서학을 공부하는 것을 심하게 나무라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천주 존재, 영혼불멸설, 천당지옥설 등의 교리가 지닌 논리적 결함을 비판하였다.<sup>7</sup> 안정복 문하에서

6 남한조가 이상정 문하에서 수학한 기간은 약 4~5년 정도로 추정된다.

7 安鼎福, ①「答權既明書 甲辰十一月二十二日」, ②「答權既明書 甲辰十二月初三日」, ③「與權既明書 甲辰」, 『順菴集』卷6(한국문집총간 229).

수학하면서 남한조는 근기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당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던 서학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남한조는 영남 이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유교 성리학의 관점에서 천·상제上帝 개념과 삼혼설三魂說 등에 관한 서학의 논리를 철저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가 서학에 대해서 스승인 안정복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안정복의 권고·우려·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호좌파 계열 인사들이 서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는 「천학설문天學設問」(1784년)·「천학고天學考」(1785년)·「천학문답天學問答」(1785년) 등의 저술을 지어 서학과 서교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정복은 자신의 저술을 제자인 남한조에게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교정을 구하였다.

임인壬寅(1782)·계묘癸卯(1783) 연간에 내가 과거에 응시하느라 순암 안선생님 문하에 왕래하였는데, 안선생님께서 ‘사학邪學이 횡행하고 있는데 총명하고 재주 있는 선비들 중에 특히 그 가운데로 빠져든 자들이 많아 장차 필시 개인과 집안과 나라에 재앙을 끼친 이후에야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깊이 근심하시고 길게 탄식하셨다.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학을 물리치는 글을 지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교정(訂正)을 해 주게.”라고 하셨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그 후 인편을 통해 소책자 한 권을 보내주셨으니, 이른바 「천학혹문天學或問」이었다.<sup>8</sup>

위 인용문은 남한조가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교정을 담은

8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壬寅·癸卯年間, 余因科行, 往來順庵安丈門下, 安丈語及: 邪學之懷襄, 聰明才辨之士, 尤多浸沒於其中, 將必禍人家國而後已, 爲之深憂永歎. 因曰: 我有闢邪一文字, 子其爲我訂正之. 余謝不敢當, 其後因人投示一小冊, 乃所謂天學或問也.”

저술 『안순암천학혹문변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발문跋文이다. 인용문을 통해 남한조가 안정복과 사제지간을 맺고 학문적으로 교류하던 맥락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다. 안정복은 자신의 저술에 대한 교정 작업을 남한조에게 직접 부탁을 하였다.<sup>9</sup>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안정복의 최초 저술 제목은 ‘천학문답天學問答’이 아니라 ‘천학혹문天學或問’이었다는 점이다.<sup>10</sup> 남한조는 감히 스승의 저술을 교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사양하였지만, 안정복은 인편을 통해 남한조에게 『천학혹문』을 전달하며 굳이 그 작업을 부탁하였다. 즉 요즘으로 치자면, 남한조는 안정복의 서학 비판 저술에 대한 일종의 최초 독자이자 토론자였던 셈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이런 중요한 작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남한조에게 부탁한 것일까? 기실 안정복의 학문을 계승한 수제자는 황덕일 黃德壹·황덕길 黃德吉 형제였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니라 남한조에게 『천학혹문』의 비평과 교정 작업을 부탁한 것은, 추정컨대 그가 영남 이학파의 학맥을 이은 인물이었기에 성리학의 핵심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기 남인 학자들과는 달리 수학 과정에서 서학서를 접하지 않은 학문적 순수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남한조는 『천학혹문』을 읽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서슴지 않고 표현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비판과 변론을 가하여 다시 안정복에게 보냈다. 일부 대목에서는 서학에 대해서 스승인 안정복보다도 더욱 강경한 비판의 논조를 보였다.

9 이러한 사실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南漢喆, 『損齋先生遺事』, 『誠齋集』卷9 (한국문집총간 속집 105), 583쪽. “時洋學已有懷襄之漸, 安公着天學或問以排之, 托先生商訂.”

10 안정복의 수기본 『順菴覆讀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도 ‘천학혹문’으로 제목이 되어 있다.

11 참고로 안정복의 문하에서 黃德壹·黃德吉·許傳·許薰·李南珪 등으로 이어지는 학통이 형성되어 근기 남인 학파의 주류를 이루었다.



저의 벗 신치봉申致鳳이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천학혹문天學或問」 1책을 전하며 보여주었는데, 의론議論이 정대하고 지의旨意가 간곡하여 무너진 풍속을 구제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약간의 의심나는 것들이 있어 작은 책자로 기록하여 올리니, 만일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과 윤색을 가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sup>12</sup>

위 인용문은 남한조가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으로, 스승의 부탁을 받고 「천학혹문」의 비평과 교정 작업을 수행하여 다시 보내면서 쓴 것이다. 안정복이 「천학교」·「천학문답」을 저술한 것이 1785년 3월 경인데, 그가 실제로 비평 및 교정 작업을 마치고 안정복에게 보낸 것은 경술년庚戌年(1790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남한조는 스승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내면서 혹 취할 만한 점이 있다면 수정과 윤색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제자의 견해가 틀렸다는 안정복의 지적이나 반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남한조의 견해를 적극 수용한 부분도 찾을 수 있다.

한편, 남한조와 가장 긴밀하게 교유했던 인물로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1738~1816)가 있다. 정종로는 경상도 문경 출신으로 이상정 문하에서 남한조와 동문수학하며 사적인 관계도 매우 돈독하였다. 두 사람은 심지어 사돈관계까지 맺었는데, 남한조의 셋째딸과 정종로의 셋째아들 정상관鄭象觀이 혼인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종로는 남한조의 사위가 된 자신의 아들 정상관에게 장인 밑에서 수학할 것을 명하였다. 즉 두 사람은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학맥을 넘어 혼맥으로 그리고 다시 아들을 통한 사승관계

12 南漢朝, 「與順庵安文 庚戌」, 『損齋集』卷2(한국문집총간 속집 99), 455쪽. “申友致鳳, 歸自那邊, 傳示天學或問一冊, 議論之正大, 旨意之懇惻, 足以救拔頹俗, 而其間有些疑稟, 錄呈小狀, 如有可採, 更加修潤, 豈非幸邪.”

까지 여러 층위로 굳건하게 맺어진 사이였다. 이 때문인지 두 사람은 서학 비판의 입장을 공유하기에 이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한조는 안정복과 사승관계를 맺으며 반서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안정복의 저술 『천학혹문』에 대한 비평과 교정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정종로 역시 남한조를 통해 안정복과 교유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서학 비판의 시각을 갖추게 된다. 나아가 남한조가 안정복의 저술 『천학혹문』에 대해 비평과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듯이, 자신은 안정복의 또 다른 저술인 『천학교天學考』를 읽고 『서천학교후書天學考後』·『우서천학교후又書天學考後』<sup>13</sup>라는 두 편의 서평을 남겼다. 즉 안정복의 반서학적 입장을 담은 양대 저술이 『천학교』·『천학문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저술에 대해 남한조와 정종로가 나란히 비평적 성격의 저술을 남겼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이러한 저술들의 산출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 정종로는 “서학의 책들을 모조리 가져다가 불태워 사람들의 눈과 귀에 근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正當盡取其書而火之, 使不接於人耳目, 可也).”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다. 그만큼 이들의 반서학적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하였다.

남한조는 주변 인물들과 반서학적 입장을 공유하는 동시에, 서학이 치성해진 현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고민을 하였던 것 같다. 이에 남한조는 서학서를 조선 최초로 전면적으로 연구하였던 성호星湖 이익李瀾에 주목한다. 서학을 접한 18세기 조선의 학자들에게 드러나는 서학 인식의 층차는 대략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서양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 여부, ② 『칠극七克』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심성 수양론에 대한 긍정 여부, ③ 서학과 유학의 천·상제上帝 관념에 대한

13 鄭宗魯, 『書天學考後』·『又書天學考後』, 『立齋集』卷25(한국문집총간 253), 433~435쪽.

동일시. 성호 이익은 서학에 대한 전면적 독서를 통해 위의 ①·②·③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찾아와 학문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유학뿐만 아니라 서학서들을 읽어볼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따라서 성호 문하에서는 이기론 등 성리학의 주요 이론 때문이 아니라, 서교와 서학의 대면에 대한 관점을 둘러싸고 학문적 분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성호우파와 성호좌파가 그것이다.

남한조는 조선에 서학이 치성하게 된 책임의 근원을 성호 이익에게서 찾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남한조의 또 다른 저술인 『이성호천주실의발변의李星湖天主實義跋辨疑』<sup>14</sup>는 만년기에 지냈던 서학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스스로 ‘성호 이선생님은 우리 당黨의 선배이시니, 못난 내가 어찌 감히 터럭만큼도 비방하고 헐뜯으려는 의도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도, 이익의 저술에 드러난 폐단을 냉철하게 지적한다. 이익은 그의 저술 「칠극변七克辨」을 통해 이미 서학의 심성心性에 대한 논의는 유가儒家の 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sup>15</sup>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발천주실의跋天主實義」에서는 “저들이 말하는 천주天主는 곧 유가의 상제上帝다”라고 입언을 함으로써,<sup>16</sup>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 서학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준 점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결국 재전제자再傳弟子의 입장에서 이익의 잘못된 입언을 비판하면서, 서학

14 南漢朝, 「李星湖天主實義跋辨疑」, 『損齋集』卷12(한국문집총간 속집 99), 651~652쪽.

15 李瀾, 『星湖僊說』卷11 「人事門」. “『七克』은 西洋 사람 반토하(Pantoja)의 저술로 곧 우리 유학의 극기克己의 설과 같다(七克者, 西洋龐迪我所著, 卽吾儒克己之說也.).”

16 李瀾, 「跋天主實義」, 『星湖全集』卷55(한국문집총간 199), 516쪽. “『天主實義』는 利瑪竇가 저술한 것이다. (...) 그 학문은 오로지 天主를 至尊으로 삼는데, 천주란 곧 유가의 上帝와 같지만 공경히 섬기고 두려워하며 믿는 것으로 말하자면 佛家の 釋迦와 같다(天主實義者, 利瑪竇之所述也. (...) 其學專以天主爲尊, 天主者, 卽儒家之上帝, 而其敬事畏信則如佛氏之釋迦也.).”

이 치성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탄식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남한조는 중년 이후에도 몇 차례 과거를 치렀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다.<sup>17</sup> 1791년 스승인 순암 안정복 사후에, 남한조는 자신의 본가가 있는 경상도 지역으로 낙향하여 현실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둔 채 생활하였다. 그는 지역의 동류 문인들과 함께 회양산(廻陽山)-속리산(俗離山)-금강산(金剛山) 및 관동팔경을 유람하며 만년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문경(慶慶) 선유동(仙遊洞)에 장수처(藏修處)로써 별장을 마련하고 강학과 후진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 대야(大埜) 류건휴(柳健休), 울원(栗園) 김양휴(金養休) 등의 문인들이 그에게 와서 수학하며 사승관계를 맺었다. 즉 남한조는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진출하여 큰 성과를 이룬 인물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는 이상정과 안정복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영남 남인과 근기 남인의 학통을 모두 계승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두 지역 사이의 학문적 교류 및 후진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인지 안정복은 살아생전 남한조를 향해 세도가 쇠퇴한 시대에 영남 지역의 지주(砥柱)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였는데,<sup>18</sup> 실제로 그는 정종로와 더불어 이상정의 학통을 계승·전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지니고 있던 반서학적 입장을 주변 인사들과 후학 등 영남의 학자들에게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한조는 만년에 강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다가 1809년 7월 66세의 일기로 삶을 마쳤다.

17 남한조는 그의 나의 49세가 되던 1792년 4월 陶山書院에서 특설한 應製試에 入格하여, 그해 가을 왕명으로 상경하여 覆試를 치르기도 하였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운은 여기까지였다.

18 安鼎福, 「答南宗伯漢朝書 丙午」, 『順菴集』 卷8(한국문집총간 229), 513~514쪽.

### 3. 「안순암천학혹문변의<sub>安順菴天學或問辨疑</sub>」의 「천학문답<sub>天學問答</sub>」 비평·교정 양상

남한조의 저술 「안순암천학혹문변의<sub>安順菴天學或問辨疑</sub>」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안정복의 반서학 저술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교정의 성격을 띤 글이다. 그는 스승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저술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는 18세기 서학 비판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바, 그 내용과 특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변의<sub>辨疑</sub>’라는 문형은 본래 경사<sub>經史</sub>의 의심스러운 대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목적을 띤 글의 형식이다. 그런데 남한조는 안정복의 반서학적 저술에 변의라는 이름과 형식을 빌어 비평과 교정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는 18세기 당시 서학 비판의 흐름에서 안정복의 저술이 일종의 정전<sub>正典</sub>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9</sup> 이에 남한조는 이러한 변의 형식을 빌어 「천학문답」이 지닌 여러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한 것으로 보인다.

「안순암천학혹문변의」는 총 4,154자 분량으로 A. 초고본 「천학설문」에 대한 11개 항목의 질의와 비평, B. 본인 스스로 나중에 미진하다 여긴 부분에 대한 2개 항목의 추가적인 보완 설명, C. 끝부분에 이 같은 저술을 짓게 된 경위를 밝힌 발문<sub>跋文</sub>,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질의와 비평 내용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9 실제로 안정복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조선 정부로부터 그의 반서학 저술들이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서학 배척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죄참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추증되었다.

차례	「辨疑」에서 언급한 항목	「天學問答」의 항목	訂正 내용
1			‘或問’이라는 제목의 부당성 지적
2	제1조	제3조	서양의 과학 기술이 뛰어나며 西士들을 신성하다 언급한 것의 부적절성 지적
3	제1조	제3조	崑崙山을 중심으로 中國이 천하의 동쪽에 해당한다는 설명의 부적절성 지적
4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내용 표현상의 ‘何必’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 지적
5	제6조	제8조	西學書を 접하고 음란한 행동을 보인 許筠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한 지적
6	제7조	제8조	西士들의 ‘爲善去惡’ 개념이 유학에서 말하는 바와 다름을 강조
7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서학의 靈神不滅說, 三魂說 비판에 대한 보완 설명
8	제9조	제12조	靈神不滅說을 거론하며 서학의 사후세계에 대해 통렬히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
9	제15조	제18조	서학에서 말하는 기도와 수행이 유학의 誠身과 비슷한 것이라는 설명의 부당성 지적
10	제20조	제24조	서학에서 말하는 上帝 개념에 대한 모순을 부연 설명. 이에 대한 수정과 윤색이 필요함을 주장
11	제24조	제30조	理氣論에 입각하여 서학에서 말하는 靈神과 유학에서 말하는 神이 다름에 대한 부연 설명

위에 제시한 총 11개의 질의와 비평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제목에 대한 문제, 저술 태도에 대한 문제, 비판 논리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먼저 제목과 관련하여, 안정복의 본래 저술 제목은 「천학문답」이 아닌 「천학혹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남한조는 우선 ‘혹문或問’이라는 제목의 명칭에 이의를 제기한다.

주자朱子가 지은 『혹문或問』의 의례義例를 보건대, 이는 『사서장구四書章句』 가운데 집주集註의 미진한 뜻을 펴고자 하여 질문을 만들어 정미精微한 뜻을 다 보인 것입니다. 어찌 장차 사마외도邪魔外道를 물리치려 하면서 ‘혹문’을 만들어 마치 한 가지 일이라도 서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는 듯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서학은 곧 사마외도 가운데서도 특히 심한 것이니, 내치고 물리치는 것이 오히려 엄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혹문’이라는 저술의 이름은 명확하지 못한 뜻이 있는 듯하니,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sup>20</sup>

주지하듯이 ‘혹문’은 본래 주희(朱熹)가 사서(四書)의 주석서인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註)』를 편찬하고 나서, 여기에 채택된 제가(諸家)의 학설이 각기 달라 독자들이 혼란스럽게 여길 것을 염려하여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 문답체로 부연 설명을 가한 저술이다. 남한조는 서학을 향해 ‘사마외도(邪魔外道)’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단의 학설을 대상으로 한 저술에 혹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혹여 서학이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용어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은 안정복에게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저술의 제목이 ‘혹문’에서 ‘문답’으로 바뀌게 되었다.<sup>21</sup>

다음으로 남한조는 안정복의 저술에서 서학과 서양을 대면하여 비판하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안정복은 초고본 「천학혹문」에서 서학과 서양에 대해 여러 층위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서양의 천문 관측과 역법 및 화포 등 과학 기술의 뛰어난 점을 말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서사(西士)들을 신성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한조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제 생각으로는 그들의 식견과 지혜가 왕왕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점이 있으

20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嘗觀朱子或問義例, 蓋爲發揮章句集註未盡之蘊, 而設爲問難, 以盡其精微之義, 豈有將闢邪魔外道, 而設爲或問, 有若容或有一段事, 可與上下其論哉. 今此西學, 乃邪魔外道之尤者, 辭而闢之, 猶恐其不嚴. 今以或問名篇, 似有拖泥帶水之意, 改之如何.”

21 이 점은 서종태, 「順菴 安鼎福의 「天學設問」과 「天學考」·「天學問答」에 관한 연구」, 『교회사 연구』 41(한국교회사연구소, 2013)에서 언급된 바 있다.

나, 부회하고 과장된 말로써 덧보탠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예가 정밀하고 공교로운 것은 지혜로운 식견 때문이며 여기에 전일<sup>專</sup>한 업을 더하여 지극히 하였으나, 또한 그 정밀함과 공교로움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지식이 비록 기이하다고는 하나 도교·불교의 부류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그들의 기예가 비록 정밀하다고는 하나 일본<sup>日本</sup>·안남<sup>安南</sup>의 공교로운 기술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것을 가지고 외람되어 신성하다는 이름을 더하여 도리어 그들의 과시하는 술책을 도울 수 있습니까?<sup>22</sup>

또 안정복은 천하의 중심을 곤륜산<sup>崑崙山</sup>으로 설정하여 중국이 그 동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곤륜산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이 균형 있게 위치해 있다고 여긴 안정복의 심상지리적<sup>心象地理的</sup>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지만,<sup>23</sup> 이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래 중국 중심의 세계관·천하관을 부정하는 발언이기에 남한조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남한조는 안정복의 이러한 발언들이 기본적으로 서학과 서양을 비판하는 논리와 어조를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권고를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서학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강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22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竊意其識解通慧, 往往有驚人處, 而益之以傳會誇誕之言耳. 其技藝之精巧, 則又以靈慧之識, 加專一之業而致之, 則亦無怪其精巧也. 然則知解雖異, 而不過道·佛之類而已, 技藝雖精, 而不過日本·安南之工技而已, 烏可以是而猥加神聖之名, 反助其眩耀之術乎.”

23 안정복의 또 다른 서학 비판 저술인 「天學考」는 중국과 서교와의 교류에 대한 史實들을 고증하여 역사적으로 西教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드러낸 저술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의 동양-서양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곤륜산을 중심으로 대등하게 표현된다.



## ①

마땅히 그 본원의 차이를 따져 엄하게 내치고 통렬하게 분변해야지, 이와 같이 느슨하게 말씀하시면 불가할 듯합니다.<sup>24</sup>

## ②

선생님의 변론 중에 이러한 뜻이 부족한 듯하니, 혹 지나치게 관대함을 베푸는 실수가 아닐런지요?<sup>25</sup>

마지막으로 남한조는 성리학의 개념에 입각하여 서학에서 주장하는 여러 개념들을 비판하며 안정복의 저술에 부족한 비판 논리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정복의 저술에서 영신불멸설(靈神不滅說)·삼혼설(三魂說), 사후세계 등에 대해 비판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서학이 유학과의 친연성을 강조하면서 차용하였던 여러 개념들의 상이성을 거듭 강조한다. 예컨대 서학과 유학에서 말하는 위선(爲善去惡)의 차이, 서학의 기도·수행과 유학의 성신(誠身)의 차이, 천(天)·상제(上帝) 개념과 영신(靈神)·신(神) 개념의 차이 등을 규명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기론(理氣論)에 기반한 성리학적 관점에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남한조는 안정복에게 성리학의 입장에서 비판의 논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①

생각건대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본래 자기 일신의 사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록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유학의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과는 흑백(黑白)처럼 얼음과 숲처럼 상반될 뿐만이 아닙니다.<sup>26</sup>

24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當就其本源之差, 而嚴辭痛辨, 不可如是緩緩說去也.”

25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辨中似欠此意, 或失之太恕, 如何.”

②

삼혼설<sup>三魂說</sup>은 더욱 가소롭습니다. 생생<sup>生</sup>이란 혈기요, 영<sup>靈</sup>이란 기<sup>氣</sup>의 신<sup>神</sup>이요, 지각<sup>知覺</sup>이란 신이 발현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영이 붙을 수 없고, 영이 아니면 지각이 발현될 수 없으니, 있으면 모두 있는 것이요 다하면 모두 다하는 것이지, 어찌 밖으로 생<sup>生</sup>혼<sup>生魂</sup>·각<sup>各</sup>혼<sup>各魂</sup>이 있으며 별도로 이른바 영혼<sup>靈魂</sup>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sup>27</sup>

③

저들이 말하는 신<sup>神</sup>은 지각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이면 생기고 흠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리<sup>理</sup>에 뿌리를 두고 날마다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르면 모이고 제향하면 이르는 것입니다. 저 영신불멸설은 이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연후라야 바야흐로 제사에 조상신이 모이고 이르는 것이 실제 그러한 이치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sup>神</sup>’ 자는 비록 같지만, 그 사정<sup>邪正</sup>과 진망<sup>眞妄</sup>의 구분은 향풀과 잡초처럼 얼음과 솜처럼 상반될 뿐만이 아니니, 동일선상에서 말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sup>28</sup>

특히 신<sup>神</sup>·혼<sup>魂</sup>의 개념에 대해서는 남한조 본인도 미진하다고 여겼던지, 스승에게 11개 조목의 질의와 비평을 정리하여 보낸 후에 별도로 『주역<sup>周易</sup>』·『주자어류<sup>朱子語類</sup>』·『주희집<sup>朱熹集</sup>』·『면재집<sup>勉齋集</sup>』 등의 책을 참고하여 2개 항목으로 보완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고는 서학이 치성해져 많은 학자들이 빠져든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도술을 밝히고 인심을

26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惟其爲善去惡, 本出於一己之私, 故雖曰爲善去惡, 而與吾儒之爲善去惡, 不啻黑白冰炭之相反.”

27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三魂之說, 尤爲可笑. 生者, 血氣也, 靈者, 氣之神也, 知覺者, 神之發也. 非生則靈無所附, 非靈則覺無所發, 有則俱有, 盡則俱盡, 豈有外生覺, 而別有所謂靈魂哉.”

28 南漢朝, 「安順庵天學或問辨疑」. “彼所謂神, 以知覺運動而言也, 聚而有散而無者也. 吾所謂神, 以根理日生而言也, 招之而萃享之而格者也. 夫惟知靈神不滅之無理, 然後方知祭祀來格之爲實然之理. 神字雖同, 而其邪正眞妄之分, 不啻如薰蕕冰炭之相反, 而不可同年而語, 明矣.”

바루어 안을 닦는 근본으로 삼으며,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책들을 불태워 밖을 물리치는 시무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발언은 스승인 안정복보다도 반서학적 입장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조의 이와 같은 지적과 비평에 대해서 안정복은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수정과 윤색을 통해 「천학문답」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고본 「천학혹문」과 완성본 「천학문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무엇보다도 저술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는 남한조의 지적과 의견 개진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정복이 저술한 초고본 「천학혹문」 항목 체계가 완성본 「천학문답」과 상이하었다는 점이다. 안정복의 문집인 『순암집 順菴集』 소재 「천학문답」은 본문에 32개의 문답과 부록으로 2개의 문답, 총 34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안정복의 수기본 手記本 『순암부부고 順菴覆額稿』에는 「천학혹문」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목부터 제7항목 중간 부분까지 일부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순암집』 소재 「천학문답」과 항목의 배열 순서가 일치한다. 하지만 앞의 도표에 적시하였듯이 남한조의 저술을 보면, 초고본 「천학혹문」의 대목 11곳을 인용하고 있는데, 11곳의 인용 대목의 항목 순서가 완성본 「천학문답」의 항목 순서와 모두 다르다. 특히 7번째 질문 제8조의 경우 본래 1개 항목이었던 것을 「천학문답」에는 3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남한조의 저술에 인용된 「천학혹문」의 항목의 마지막은 ‘제24조’인 바, 추정컨대 초고본 「천학혹문」의 경우 완성본 「천학문답」의 34개 항목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인용된 「천학혹문」의 본문에는 서술상 글자의 출입도 발견된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점을 근거로, 남한조의 지적과 의견 개진을 통해 안정복은 초고본 「천학혹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은 ㉠ 문답 항목의 추가 및 세분화, ㉡ 문답 항목 배열 순서 조정, ㉢ 본문 내용의 자구 수정이었다

고 판단된다.

나아가 남한조의 저술 끝부분에 위치한 발문과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sup>29</sup>를 통해, 「천학문답」의 저술 시기 및 수정 보완의 시기도 추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sup>30</sup> 이를 간략히 정리 하자면, ① 1784년 겨울 「천학설문天學設問」을 짓고, 이를 바탕으로 ② 1785년 3월 「천학교」·「천학혹문」으로 개편을 하고, ③ 1785년 12월 「천학혹문」의 1차 수정 보완을 하고, ④ 1790년 가을 남한조의 교정 및 의견 개진을 수용하여 「천학혹문」의 2차 수정 보완을 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학문답」이라 칭하는 안정복의 저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안정복은 1791년 7월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서학 비판 저술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4. 18세기 반서학적反西學的 흐름의 확산과 남한조南漢朝의 위상

18세기 서학을 수용하고 배척한 일련의 흐름은 대체로 성호 이익 문하의 근기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그들이 거주하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그 중심이었다. 그런데 남한조의 등장으로 인해

29 南漢朝, 「與順庵安丈」, 『損齋集』卷2(한국문집총간 속집 99), 455쪽.

30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혜안, 1996);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학문세계』(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차기진, 『조선 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西學認識과 『天學問答』」, 『성호학보』 7(성호학회, 2010); 서종태, 앞의 논문(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이러한 흐름에 다소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래 남한조는 이상정의 학맥을 이은 영남 이학파의 남인 학자였다. 그런데 그가 도성으로 올라와 안정복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반서학적 입장을 지니게 되었고, 남한조를 통해 안정복으로 대표되는 성호우파 계열의 반서학적 입장이 영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남한조의 반서학적 인식과 관련 저술은 18세기 후반 서학 비판 흐름의 확산 국면에서 두 가지 측면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성호우파의 핵심 인물인 안정복 문하에서 서학 비판의 흐름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해 나갔는가 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정복의 반서학적 입장은 「천학설문天學設問」(1784년)·「천학고天學考」(1785년)·「천학문답天學問答」(1785년)의 저술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안정복 문하에서 계승되고 확산되는데,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남한조의 저술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남한조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가 완성된 것은 1790년 무렵이다. 이듬해 1791년 7월 안정복이 사망하는데, 때를 같이하여 진산사건珍山事件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안정복의 수제자 공백당拱白堂 황덕일黃德壹은 주자학을 현정顯正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가략三家略」(1791년)<sup>31</sup>이라는 저술을 지어 도가·불교와 함께 서학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그 이단성을 파헤쳤다.<sup>32</sup> 남한조의 또 다른 반서학 인식을 드러내는 저술 「이성호천주실의발변의李星湖天主實義跋辨疑」는 정확한 저술 시기를 비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안정복의 문하에서는 순암 사후에도 황덕일과 남한조를 필두로 하여 근기 지역은 물론 영남 지역에서도 서학 비판의 흐름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나갔다는

31 黃德壹, 「三家略」, 『拱白堂集』卷7(한국문집총간 260), 235~243쪽.

3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지형, 「順菴 西學認識의 계승과 확장」, 黃德壹의 「三家略」, 『누리과말씀』 36(인천가톨릭대학교, 2014) 참조.

점을 관련 저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근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서학 비판의 논의가 영남 지역 남인으로 확산을 가져오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남한조와 그의 저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남한조는 영남학파 중에서도 이황李滉의 계승을 주창하고 일어난 이현일李玄逸·이재李裁로 이어진 영남 이학파의 증추적 인물이다. 그의 문하에서 남한조를 비롯하여 정종로鄭宗魯·조술도趙述道·이우李堉·류범휴柳範休 등의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남한조를 매개로 영남 지역의 다른 인사들도 안정복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반서학적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제일 먼저 남한조와 가장 절친하였던 인물인 입재 정종로는 「서천학교후書天學考後」·「우서천학교후又書天學考後」를 지어 남한조와 보조를 같이하게 된다. 영양英陽 출신의 조술도 역시 「운교문답雲橋問答」<sup>33</sup>을 지어 서학 비판의 흐름의 대열에 합류하자, 그와 교유하던 정와貞窩 황용한黃龍漢은 조술도의 글을 읽고 「서운교문답후書雲橋問答後」<sup>34</sup>를 지어 그의 반서학적 인식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상정 문하의 또 다른 인물인 의성義城 출신의 회명晦屏 신체인申體仁은 안정복·조술도의 반서학 저술을 읽고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sup>35</sup>을 지어 천주학이 이단의 학문임을 역설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칠곡漆谷 출신의 만각재晩覺齋 이동급李東汲은 「척사문답斥邪問答」<sup>36</sup>을 지어 서학에 대한 강한 배척 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남한조의 제자였던 안동安東 출신의 류건휴柳健休는 영남 지역 선배들

33 趙述道, 『雲橋問答』, 『晩谷集』卷8(한국문집총간 속집 92), 291~294쪽.

34 黃龍漢, 『書雲橋問答後』, 『貞窩集』卷8(한국문집총간 속집 100), 647~648쪽.

35 申體仁, 『天學宗旨圖辨』, 『晦屏集』卷6(한국문집총간 속집 93), 262~264쪽.

36 李東汲, 『斥邪問答』, 『晩覺齋集』卷3(한국문집총간 251), 472~474쪽.

의 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이학집변(異學集辨)』<sup>37</sup> 권6의 「천주학(天主學)」부분을 완성하였다.<sup>38</sup>

이처럼 18세기 후반 근기 남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서학 비판의 논의가 영남 지역 남인들로 확산되고, 영남 지역 안에서 반서학 정서가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게 한 핵심 연결고리에 바로 남한조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남한조의 반서학 인식과 관련 저술은 18세기 후반을 넘어 19세기 초반까지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의 서학 비판 맥락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8세기 후반 영남 지역 출신 남인 계열 학자였던 남한조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안정복의 대표적인 반서학 저술 「천학문답」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가한 「안순암천학혹문변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남한조의 학문적 계보와 생애사를 검토하여 그가 지녔던 반서학적 인식의 형성 과정을 살피고, 그를 통해 영남 지역으로 반서학적 흐름이 확산되어 가는 국면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37 류건휴 지음(권진호 외 옮김), 『이학집변 — 영남 유학자의 이단 비판』(한국국학진흥원, 2013).

38 류건휴에 대해서는 김선희, 「19세기 영남 남인의 서학 비판과 지식권력 — 류건휴의 『이학집변』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1(한국사상학회, 2015) 참조.

남한조는 경상도 상주 출신으로 대산 이상정 문하에서 수학한 영남 이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상정 사후에 다시 안정복에게 나아가 수학을 이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근기 남인 사이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던 서학의 실체를 인지하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18세기 서학 비판의 흐름 속에서 영남 지역 출신 인물로는 최초로 반서학적 인식을 지니고 관련 저술을 남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안정복 문하에서 수학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스승의 반서학 저술인 『천학문답』에 대한 교정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개진한 『안순암천학혹문변의』라는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조는 조선에 서학이 치성하게 된 원인을 탐색하다가 『이성호천주실의발변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두 저술은 남한조의 반서학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안순암천학혹문변의』에서 남한조는 11개 질의 및 비평 항목을 통해 안정복의 저술에서 드러난 제목에 대한 문제, 저술 태도에 대한 문제, 비판 논리에 대한 문제를 적극 거론하였다. 이러한 남한조의 견해를 수용하여 안정복은 상당한 수정과 윤색을 거쳐 최종적으로 『천학문답』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서학 비판의 흐름은 성호문하의 근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적으로는 그들이 거주하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반서학적인 흐름은 영남 지역 출신이었던 남한조를 매개로 하여 이상정 문하의 영남 이학파 문인들에게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남한조와 교류하던 영남 지역의 여러 문인들, 예컨대 정종로·조술도·황용한·신체인·이동급은 각각 반서학 인식을 담은 저술들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남한조의 제자였던 류건휴는 스승의 영향을 받고 지역 선배들의 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이학집변』, 『천주학』



부분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반서학적 인식과 흐름이 근기 지역에서 영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영남 지역 안에서 반서학 정서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남한조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 2019. 02. 17 : 논문투고

• 2019. 02. 23 ~ 03. 06 : 심사

• 2019. 03. 08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 南漢朝, 『損齋集』(한국문집총간 속집 99).  
南漢皐, 『誠齋集』(한국문집총간 속집 105).  
李東汲, 『晚覺齋集』(한국문집총간 251).  
李 澗, 『星湖全集』(한국문집총간 199).  
申體仁, 『晦屏集』(한국문집총간 속집 93).  
安鼎福, 『順菴覆瓿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安鼎福, 『順菴集』(한국문집총간 229).  
鄭宗魯, 『立齋集』(한국문집총간 254).  
趙述道, 『晚谷集』(한국문집총간 속집 92).  
黃德壹, 『拱白堂集』(한국문집총간 260).  
黃龍漢, 『貞窩集』(한국문집총간 속집 100).
- 강세규,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혜안, 1996.  
\_\_\_\_\_,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학문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김선희, 『하빈 신후담의 돈와서학변』, 사람의무늬, 2014.  
\_\_\_\_\_, 「19세기 영남 남인의 서학 비판과 지식권력 — 류건휴의 『이학집변』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1, 한국사상사학회, 2015.  
류건휴 지음(권진호 외 옮김), 『이학집변 — 영남 유학자의 이단 비판』, 한국국학진흥원, 2013.  
서종태, 「順菴 安鼎福의 「天學設問」과 「天學考」, 「天學問答」에 관한 연구」, 『교회사연구』 41,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실학 — 반계와 성호의 경우」, 『철학사상』 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1.  
조지형, 「順菴 西學認識의 계승과 확장, 黃德壹의 「三家略」」, 『누리와말씀』 36, 인천가톨릭대학교, 2014.

- \_\_\_\_\_,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교회사연구』 50,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 \_\_\_\_\_, 「無名子 尹禧의 서학 비판 저술과 천주교 인식」, 『누리와말씀』 41, 인천가톨릭대학교, 2017.
- 차기진, 『조선 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西學認識과 『天學問答』」, 『성호학보』 7, 성호학회, 2010.

Abstract

## Criticism on Ahn Jeong-bok's 「Cheonhakmundab」 and Spread of Anti

— Western Learning Awareness

Cho, Jih-young  
Incheon Catholic Univ.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ademic pedigree and life histories of Nam Han-jo, a scholar from Yeongnam region, to researc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nti-Western learning awareness that he had, and to investigate the phases that the flow of criticizing Western learning was spread into Yeongnam region through him.

Nam Han-jo originally studied under Lee Sang-jeong and succeeded to Yeongnam Yi School scholastic mantle. As he studied under Ahn Jeong-bok after his teacher died, he recognized the true nature of Western learning that was very problematic among Geungi Namin scholars and held critical position on it.

While he was in charge of correction of 「*Cheonhakmundab* (天學問答)」 by his teacher's recommendation, he left a book 「*Ansunamcheonhak-hokmunbyeonui* (安順菴天學或問辨疑)」 that states his opinions and criticisms. This book well shows Nam Han-jo's anti-Western learning awareness.

The tendency of criticizing Western learning done by 18<sup>th</sup> century Geungi Namin scholars affected Yeongnam region's Namin with the

medium of Nam Han-jo. Therefore, such scholars who had academic exchange with Nam Han-jo as Jeong Jong-ro, Jo Sul-do, Hwang Yong-han, Shin Che-in and Lee Dong-geub left their own books that contain anti-Western learning awareness. In addition, Ryu Geon-hyu, who was a pupil of Nam Han-jo, wrote 『*Yihakjibbyeon* (異學集辨)』. As shown above, Nam Han-jo played a great role in spreading anti-Western learning awareness throughout Yeongnam region in the late 18<sup>th</sup> century.

Key words

: Nam Han-jo(南漢朝), *Ansunamcheonhakhokmunbyeonui*(安順菴天學或問辨疑), Western learning(西學), Ahn Jeong-bok(安鼎福), *Cheonhakmundab*(天學問答), Seonghowoopa(星湖右派)

